

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

-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,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1차 운영계획 확정
-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,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, 주소정보산업 창출 등 3대 목표

- 입체주소(지상도로, 고가도로, 지하도로, 내부도로), 사물주소,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었다.
- 행정안전부는 「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」(이하 ‘운영계획’)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.
 -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,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「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」를 올해 1월 설치하고,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.
-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▲주소정보 품질 고도화, ▲주소정보 활용 활성화, ▲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, 4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추진된다.
 -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,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.
- 운영계획의 4대 전략은 첫째, ‘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’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(지상도로→고가·지하·내부도로), 사물주소 확충(14종→35종), 사람·차량·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할 계획이다.

○ 아울러,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*로 강화하고, 주소 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(컨설팅) 도입을 통해 고품질을 유지하여 민간과 공공에 제공할 계획이다.

* (1차) 작업지휘자 → (2차)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역본부 → (3차)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

□ 둘째, ‘주소기반 생활·행정서비스 혁신’을 위해 생활,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릴 계획*이다.

* 초·중학생(학교 교육), 다문화가족(한국 적응 교육), 교통약자(평생교육), 민간자격증 확대 등

□ 셋째, ‘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’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·보급*하고, 한국형주소(K-주소)를 국제표준(ISO 등)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.

* 예) 낙후지역 드론을 이용한 문서 사송, 자율주행로봇 청소, 자율주행차 주차 예약, 긴급상황 발생시 실내 최적·최단경로 안내 등

□ 넷째, ‘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’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, 주소 관련 산·학·연·정*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해 갈 계획이다.

*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위원회, 주소기반산업협회, 주소정보 활용기관 협의회 등

□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·제공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.

□ 한창섭 차관은 “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”라며, “한국형 주소 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,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지방자치 균형발전실 주소정책과	책임자	과 장	송정아 (044-205-3551)
		담당자	서기관	고종신 (044-205-3552)



I 계획의 개요

- **(성격)** 「도로명주소법시행령」 제54조 제1항 운영계획 수립 의무와 「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」에 따른 하위 계획
 - * 근거: 「도로명주소법」 제28조 ‘설치’, 같은 법 제33조 ‘위탁’, 「도로명주소법시행령」 제54조 제1항 ‘운영계획 수립 의무’, 「제1차 주소정보 활용 기본계획」에 따라 계획
- **(목적)** 센터* 위탁기간(‘23.~’27.) 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①고품질 주소정보 생산, ②주소정보 활용 활성화, ③주소정보산업 창출 도모
 - * 한국국토정보공사(LX)에 설치: 1센터, 1사업단, 5팀 31명 규모
- **(절차)** 초안(4.18, 국장) 부처·지자체 협의(~4.28. 충북, 대구, 인천, 교육부 의견 반영) → 심의(5.11.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예정) → 차관 보고

II 비전과 전략

- **(비전)** 주소로 **안전한** 나라, 주소로 **편리한** 나라, 주소가 **자원인** 나라
- **(목표)**

주소정보 고도화 (인프라 2배 확충)	+	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(연 3.3조 원 편익 창출)	+	주소정보산업 창출 (^{30년 기준} 1조 원 시장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-	--
- **(추진전략)** 기본계획을 지원하는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 선정 **[참고]**
 - 전략1** 주소정보 실시간 갱신 및 고품질 유지(4개 추진과제)
 - ⇒ 주소체계 고도화 완성 및 품질검사·컨설팅을 통한 안정적 관리
 - 전략2** 주소기반 생활·행정서비스 혁신(4개 추진과제)
 - ⇒ 분야별 맞춤형 활용지원으로 실질적 주소사용 편익 확충
 - 전략3**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(4개 추진과제)
 - ⇒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창출 및 K-주소 해외 진출
 - 전략4**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(3개 추진과제)
 - ⇒ 제도기반의 신기술 개발 및 국민소통 강화

Ⅲ 추진과제

1. 주소정보 실시간 갱신 및 고품질 유지

- **(주소체계 고도화 완성)** 지하·고가도로 등에 도로명 부여* 및 사물주소 추가 부여('23.14종 → '27.35종)를 통해 **촘촘한 주소체계 구축**
 - * ▽농로·숲길 '23.15km → '27.259,203km ▽지하·고가도로 '23.639건 → '27.1,973건
▽내부도로 '23.222건 → '27.1,252건 ▽실내 이동경로 '23.65,204건 → '27.419,961건
- **(주소정보 지능화)** 사람·차량·로봇 등 **이동체별 이동경로·출입구 구축***
 - * 드론·로봇 이동(신청시 구축), 실내 내비게이션(7,760동), 출입구(503,659동)
- **(주소정보 품질검사)** 기본도(주소정보용 전자지도)에 등록되는 신규 DB는 3단계* 품질검사, 기존 등록 DB는 반기별 **검증을 통해 품질 제고**
 - * (1차 검수) 작업지휘자 → (2차 검수) LX 지역본부 → (3차 검수)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
- **(컨설팅)** 주소계획(건축)·주소부여(시군구)·사후관리 시 **수시 컨설팅**

2.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

- **(활용실태 점검)** 118개 분야, 3년 단위 주소정보 활용실태 점검·지원

구분	활용분야(118)	정책 대상 집단
생활	방문(8), 배달(8), 모임(6)	한국관광협회, 한국통합물류협회, 한국장례협회 등
공공	일반행정(15), 교통·환경(23), 보건·문화(15)	중앙행정기관, 지자체, 한국철도공사, 국민건강보험공단 등
산업	생산·제조(16), 금융·쇼핑(16), 광고·통신(11)	주소기반산업협회, 금융투자협회, 한국전광방송협회 등

- **(정책동향 파악)** 언론(수시), 공모사업(관계기관, 주 1회), 중기계획(전문기관, 월 1회) 모니터링을 통한 **이슈 발굴 및 주소정보 적용 지원**
- **(재난 긴급 대응)** 재난시 임시거주시설 주소 부여, 재난장소 안내 지원
- **(교육 확대)** 주소정보 일반상식화*, 종사자 역량(전문교육기관 선정 교육) 강화, 긴급구조(소방·경찰·재난) 교육, 전문가 양성(대학교육과정 개설) 지원
 - * 초중학생(학교 교육), 다문화가족(한국 적응 교육), 교통약자(평생교육), 민간자격증 확대

3.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

- (산업모델 개발·보급 및 창업 지원) 주소기반 5대 산업모델 개발·보급 및 연계 서비스분야 활성화 지원

5대 모델	드론 배송	자율주행로봇 배송	자율주행차 주차	실내 내비게이션	길안내 사물인터넷
연계분야	문서 사송	순찰 및 청소	주차장 예약 공유	소방 안전	도시정보 관리

- LX(한국국토정보공사) 창업지원 프로그램*과 연계, '24년부터 공모대회 시작

* 창업자금 및 공간지원, 교육지원 및 컨설팅, 판로개척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지원

- (첨단기술분야 주소정보 적용) 각 부처·지자체, 연구기관 등의 첨단 기술분야* 시범사업과 병행하여 주소정보 적용모델 개발 지원

* 데이터 연계(3D, AR), 탐지(딥러닝, RTK), 서비스기술(장소지능화), 가상현실(디지털트윈)

- (K-주소 브랜드화) K-주소 개념과 이를 활용한 제품사양 등을 국내 표준(TTA, KS 등)를 거쳐 국제표준(ISO, OGC, ITU)으로 확대

- (해외 진출 지원) 5년간 국제홍보* 및 8개국 이상 ODA사업 발굴

* 국제행사 연평균 4회, 개도국 공무원 대상 교육,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·배포 등

4.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

- (지능화 기술 R&D 지원) 초연결 주소지능정보 기반기술 및 서비스 기술 개발·실증을 위한 기획보고서 작성 및 예산 확보 지원

- 행안부 자체(관리·표준화·서비스요소 기술), 다부처(활용-확산-연계 기술)

- (국민소통 지원) 주소관련 산·학·연·정*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** 강화

* 주소지능정보 전문가 위원회('23.), 주소정보 활용기관 협의회('23.), 거버넌스 총회('25.)

** 주소정보 관련 산·학·연·정의 국내 컨퍼런스 연 1회·국제 컨퍼런스 2년 단위 개최

비전

주소로 **안전한** 나라, 주소로 **편리한** 나라, 주소가 **자원인** 나라

주소정보 품질 고도화

인프라 확충

주소정보 활용 활성화

비용 편익 창출

주소정보산업 창출

'30년 기준 1조 원 시장

정책방향

추진과제

1. 주소정보
실시간 갱신
및 고품질
유지

- ① 주소정보기본도 실시간 정비·갱신·고도화 지원
- ② 주소기반 이동지능 및 장소지능정보 구축
- ③ 주소정보 생애주기 전반을 고품질로 관리
- ④ 주소정보 부여 컨설팅 및 추적관리

2. 주소기반
생활·행정
서비스 혁신

- ① 주소정보 활용실태 점검 및 혁신 지원
- ② 주소정책 관련 동향 파악 및 주소정보 적용 지원
- ③ 주소정보 활용 취약 상황 긴급 대응
- ④ 주소정보 활용 분야별 교육환경 조성 지원

3. 신성장
동력으로
주소정보산
업 창출

- ① 주소기반 신산업 모델 개발·보급 및 창업지원
- ② 첨단기술분야 주소정보 적용 모델 개발 및 지원
- ③ K-주소 운용·활용 표준화 지원
- ④ K-주소 해외 진출 지원

4.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

- ① **【신기술 개발】** 초연결 주소지능정보 기반 위치 지능화 서비스기술 개발 지원
- ② **【국민소통 강화】** 거버넌스, 전문가 컨퍼런스 및 대국민 홍보 등 소통강화
- ③ **【법·제도화 지원】** 신규 발굴업무의 제도화 및 추진계획 수립 지원

행정안전부

사람과 기계 모두 소통할 수 있는
위치표시체계는 오직
‘주소’

행정안전부

우리의 주소는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

(전통적)

거주지나
사업장 소재지

→

(현재)

위치식별자

‘주소정보’ 무엇일까요?

- 사람과 사람, 사람과 기계(로봇) 사이의 위치 소통 수단
- 가상세계와 현실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이자 국가기본데이터로서 데이터 간을 연결하는 최상위 데이터

행정안전부

보다 쉽고 편리한 주소정보 활용을 위해
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
설치·운영합니다

행정안전부

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
중기 운영계획 (23.~27)

주소정보 실시간 갱신
및 고품질 유지

주소기반
생활·행정서비스 혁신

신성장 동력으로
주소정보산업 창출

신기술개발 R&D,
주소정보 거버넌스 강화

행정안전부

주소정보 활용지원으로 국민생활이
보다 안전하고 편리해 집니다

생활안전 제고

사람+장소+사물 융합으로 재난·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

생활편의 향상

지능화된 주소정보로 사용자 편의 증대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갈사는 안전한 나라

행정안전부

주소정보 활용지원으로
주소가 산업자원이 됩니다

사회적 비용절감

주소정보 인프라 제공으로 중복투자 비용 감소 및 진입장벽 완화

국가경쟁력 제고

K-주소 브랜드화로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 마련